

툼 안홀트 개인전

《낙화 *Fallen Flower*》



〈낙화 I〉

2021

리넨에 유채

170x150cm

© 2021. Tom Anholt.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전시제목 : **툼 안홀트 개인전, 《낙화》**

전시기간 : 2021년 10월 27일(수) – 2021년 11월 21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오프라인]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OROOM)

[온라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24점 (유화 12점, 수채화 12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조윤성 cho@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11027-20211121_툼 안홀트, 낙화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11월 21일(일)까지 **학고재** 및 **학고재 오룸(OROOM, online.hakgojae.com)**에서 **툼 안홀트**(Tom ANHOLT, b. 1987, 영국 바스) 개인전 《낙화 *Fallen Flower*》를 연다. 툼 안홀트는 국제 미술계가 주목하는 회화 작가다. 지난해 런던, 베를린, 로스앤젤레스, 코펜하겐 등 세계 곳곳에서 개인전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2019년 학고재청담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을 선보인 이후 학고재에서 2년 만에 개최하는 개인전이다. 툼 안홀트는 미술사와 가족사, 경험과 상상 속 이야기들을 하나의 화면 위에 중첩한다. 복합적인 서사의 망을 특유의 영화적 감각으로 엮어내는 일이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의 서사'다. 늘 아름답지만은 않은 사랑의 양가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다. 학고재 본관에서 여는 이번 전시는 툼 안홀트가 새롭게 제작한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유화 12점과 수채화 12점을 선별하여 다채롭게 구성했다.

2. 전시 주제

툼 안홀트의 아시아 2번째 개인전 《낙화》 – 낭만적인 동시에 위태로운 ‘사랑의 서사’

툼 안홀트의 아시아 두 번째 개인전 《낙화》는 사랑의 서사를 주제로 한 전시다. 전시에 선보이는 화면들은 저마다 낭만적인 동시에 불안하고, 때로 폭력적인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다. 전시명인 ‘낙화’는 즐거로부터 떨어진 꽃을 가리킨다.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미약하게 살아 있는 꽃 봉우리가 사랑의 정서를 상징한다. 작가는 작은 이야기들을 엮어 책을 짓듯 전시를 구성한다. 마치 동심 가득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풀어놓은 전집 같은 전시다. 각 화면은 독립적 서사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전시 안에서 전체의 맥락을 구성한다.

툼 안홀트의 화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현실의 정서를 진솔하게 대면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풀어낸다. 위태로운 서사와 찬란한 색채가 역설적으로 어우러진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 때로 <부서진 바위 (무명의 페르시아 세밀화)>(2021)의 연인처럼 폭력성을 드러낸다. <2 AM>(2021)의 인물이 잠든 밤중 침대 밑의 유령이 되어 꿈의 세계를 괴롭히기도 한다. 사랑은 <낮선 사람>(2021)이 드러내는 고립의 정서를 감내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밤중의 만남>(2021)에서처럼 결국 화해를 시도한다. <새로운 새벽>(2021)의 자상한 여인의 표정은 포용적인 모성을 상징한다.

영국 청년 작가 톼 안홀트 – 문화와 역사, 경험과 신화가 뒤섞인 신비로운 화면

툼 안홀트는 영국 바스 출생의 청년작가다. 아일랜드계 어머니와 페르시아계 유대인 혈통을 지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랐다. 회화 작가로서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술사와 자신의 가족사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이에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더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면을 구축해낸다. 톼 안홀트는 청소년기 런던 테이트 브리튼에서 막스 베크만(Max Beckmann)의 전시를 관람한 것을 계기로 작가의 꿈을 키웠다. 유럽의 모더니즘 작가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기반 삼아, 기독교 중심의 서구 문화와 서아시아의 페르시아 세밀화 양식을 작품세계에 끌어들이었다. 서구 모더니즘과 이슬람의 문화적 요소가 하나의 화면 위에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양한 장면들을 하나의 화면 위에 중첩하여 구성하는 방식이 영화의 기법을 연상시킨다. 화면 속 밤하늘에 빛나는 달, 기하학적 무늬들, 평면적인 배치는 페르시아 세밀화에서 참조한 요소들이다.

3. 작품 소개

*이미지 사용시 아래 저작권 표기 부탁드립니다.

© 2021. Tom Anholt.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EIGEN + ART Leipzig/Berlin



〈낙화 I〉

2021

리넨에 유채

170x150cm

이번 전시명과 같은 제목을 가진 회화 〈낙화 I〉(2021)는 기하학적 배경 위에 놓인 화병의 형상을 전면에 드러내는 회화다. 일견 전형적인 정물화의 구도를 연상시킨다. 이 화면에서 핵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화병 바깥의 바닥에 자리한 한 송이의 낙화다.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꽃의 모습이 사랑의 고독을 투영한다. 시들을 예견하면서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 봉우리가 사랑의 양가적인 측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에 선보이는 다양한 화면 속 사랑 이야기들이 이 화면 안에 귀결된다.



〈2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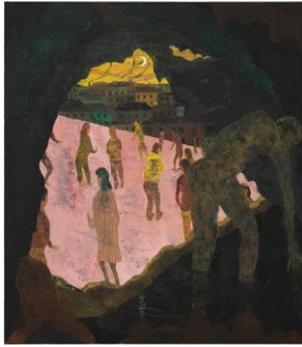
2021

리넨에 유채

190x150cm

서아시아의 삽화 장르인 페르시아 세밀화는 이슬람 회화의 대표적인 화법이다. 톰 안홀트의 아버지 측 조상은 16세기 말 유럽으로 이주한 페르시아계 유대인이다. 작가는 자신의 가족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 세밀화에 관심 갖게 되어 형식과 색채 등을 자주 참조하게 됐다.

〈2 AM〉(2021)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기하학적 도형과 패턴이 화면에 장식성을 더한다. 평면 위에 서사를 나열하는 구성 방식이 신화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의 구도와 달의 도상 또한 페르시아 세밀화의 특징이다. 화면은 중심선을 기점으로 분할되어 있다. 화면 상단의 하늘 위에 빛나는 유백색 달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초월적 존재를 연상시킨다. 달빛 아래 잠든 인물이 한쪽 팔을 화면의 하단부를 향해 늘어뜨리고 있다. 하단의 어두운 공간은 사랑의 이면을 상징한다. 침대 아래 숨어 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꿈속 세계를 괴롭힌다.



〈낮선 사람〉
2021
리넨에 유채
150x130cm

〈낮선 사람〉(2021)은 관객의 시선을 어둡고 습한 동굴 속 공간 내부로 초대한다. 〈2 AM〉의 침대 아래 어둠과 같은 맥락의 장소이지만, 화면 속 인물의 상황을 보다 공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주체의 고립 상황을 시야 가까이 보여주며, 관객으로 하여금 마치 그 동굴 안에 함께 갇힌 듯한 거리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의해 별을 받는 남자는 발목까지 잠기는 습지의 동굴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동굴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극명한 대비가 고립의 정서를 극대화한다. 한편, 극복해 나아갈 세상이 늘 가까이 자리해 있다는 희망을 암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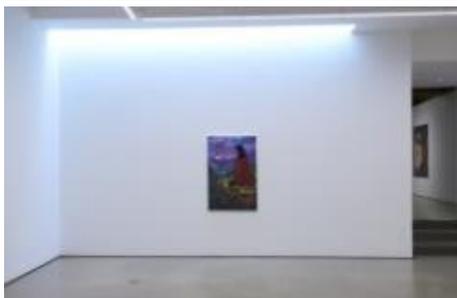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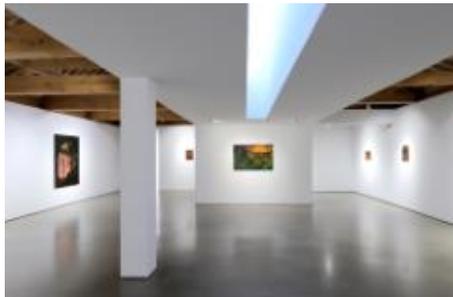
〈혼자 있는 바위〉
2020
종이 콜라주에
수채와 연필
21x16.5cm



〈창문〉
2021
종이에 수채
18x23cm

툼 안홀트의 작업은 주로 콜라주와 수채화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여러 층위로 중첩하고, 영화적인 감각으로 제련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톰 안홀트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작한 수채화 12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유화로 나아가기 위한 최초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는 최초의 화면이다. 자유로운 필치와 다채로운 색상이 돋보인다.

4. 전시 전경



[학고재 전시 전경]

5. 작가 소개

툼 안홀트는 1987년 영국 바스에서 태어났다. 2010년 런던예술대학교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베를린에 정착했다. 지난 2018년 쿤스트 페어라인 올름(올름, 독일)에서 개인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학고재청담(서울)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갤러리 아이겐+아트(베를린; 라이프치히, 독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베를린; 코펜하겐), 조쉬 릴리(런던), 프랑수아 게발리 갤러리(로스앤젤레스, 미국), 1969갤러리(뉴욕) 등 세계 곳곳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동시대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학고재(서울), 베를린주립미술관(베를린), 함부르크 미술관(함부르크, 독일), 본 미술관(본, 독일), 프라이에스 뮤지엄(베를린), KH7 아트스페이스(오르후스, 덴마크), 사치 갤러리(런던)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컬렉션 알레산드로 베네통(트레비소, 이탈리아), 컬렉션 마리오 테스티노(런던), 컬렉션 미티넨(독일; 핀란드), 사치 컬렉션(런던), 덴마크 서지센터(코펜하겐) 외 다수의 기관 및 재단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6. 전시 서문

전시 서문 인용시 저자의 저작권 표기 또는 저자명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21. Felix von Haselberg.

낙화

펠릭스 폰 하젤베르크(Felix von Haselberg)

고립의 상황에 놓이면, 현재를 이끌어낸 자신의 환경을 문득 되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고립된 사람에게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둘러싼 것들뿐만 아니라 감정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고찰이다.

툼 안홀트의 개인전 《낙화》는 고립의 경험을 회화의 세계 안에 풀어낸다.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으로 구현한 세계다. 꿈처럼 짜깁기한 장면들과 변형되는 기억의 형상 가운데 때로 폭력적인 메타포가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서사에 관한 실존적 경험이다. 사랑의 시작과 함께 낭만화되는 세계관과 그것이 불러오는 필연적인 상처들, 그로부터 크게 영향 받게 되는 꿈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툼 안홀트의 화면은 다양한 경험의 시각적 복합체다. 작가는 특유의 회화 언어로 경험의 핵심을 향해 다가간다. 모호하고 거친 표면 위에 피어나는 인물들과 색면의 중첩은 사랑하는 이의 정서적 풍경을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사의 망을 엮어낸다. 전체의 전시를 은연 중에 포괄하는 그물망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읽힐지 정해진 바 없으나, 모든 작품을 서로 관계 맺도록 하는 하나의 서사다.

<부서진 바위>(2021)와 <인사가 아닌>(2021)의 화면은 버림받은 연인의 무력감을 묘사한다. 예기치 못한 죽음의 상황, 또는 의사의 위기 속에서 도움을 외면당한 이의 절망에 비유된다. 한편 <밤중의 만남>(2021)은 어두운 밤 잠정적 화해를 위해 만난 연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새벽>(2021)에는 자상한 모성을 연상시키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전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화면이다. 정갈한 표현과 낙관적인 분위기가 유독 돋보인다. 바위처럼 견고하게 그린 화면은 전체의 서사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안락함은 곧 파괴된다. 침대 아래 숨은 악몽 같은 존재가 사랑하는 이를 괴롭힌다.

벌을 받은 남자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불가피한 고립의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주위의 평범한 날들 가운데, <낮선 사람>(2021)은 습지의 동굴 속에 홀로 갇혀 있는 것이다. 극복할 수 없는 경계에 의해 소외되고, 단절된 인물이다. 전시명과 동일한 <낙화>(2021)의 화면은 전시를 구성하는 이야기 요소를 정제하여 드러낸다. 객관화와 추상화를 통해서다. 하나의 형상 속에 전체의 서사가 함축된다. 줄기로부터 떨어어진 꽃은 미약하게 살아 있으며 아직 죽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들이 이 장면에 귀결된다.

한편 달은 침묵하는 관찰자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다. 연무 속에서 변모하는 빛이 만물에 장막을 드리운다.

툼 안홀트의 작업은 주로 콜라주 및 수채화 습작에서 시작된다. 조밀하게 중첩된 다층의 이미지를 회화의 화면으로 옮겨내는 것이다. 그는 특유의 영화적 감각으로 이미지를 제련하는데, 자르고, 편집하고, 확대한 장면의 다양한 층위가 하나의 서사를 완성해간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연 툼 안홀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다시금 심혈을 기울였다. 작가의 통찰과 정서를 성공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을 한 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다.

7. 작가 약력

툼 안홀트

- 1987 영국 바스 출생
- 2007 런던 팰머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 수료
- 2009 스톡홀름 콘스트팍 - 예술 공예 디자인 대학교 졸업

2010 런던예술대학교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순수미술학과 졸업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

주요 개인전

2021 낙화, 학교재, 서울

인공의 빛,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달빛, 프랑수아 게발리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클로즈 투 홈, 갤러리 아이겐+아트, 베를린

2020 모든 것에 대한 노트, 조쉬 릴리, 런던

2019 블루,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툼 안홀트, 학교재청담, 서울
삶으로부터, 갤러리 아이겐+아트, 라이프치히, 독일

2018 타임머신, 쿤스트 페어라인 울름, 울름, 독일
아비뇽의 여인들, 프리즈 뉴욕 (조쉬 릴리 기획), 뉴욕
진짜 이야기, 조쉬 릴리, 런던

2017 식스티,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뉴 워크, 뉴 York, 1969갤러리, 뉴욕

2016 인사이드 아웃, 아이겐+아트 랩, 베를린
제이콥의 여행, 볼타 NY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기획), 피어 90, 뉴욕
고대의 게임, 프로젝트B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15 히스토리 보이, 아이겐+아트 랩, 베를린

2014 베이 스트란드,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스튜디오 하우스, 코펜하겐
레인보우 워크,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2013 사람이 만든,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주요 단체전

2020 하트 - 100인의 작가. 하나의 미션, 본 미술관, 본,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 함부르크, 독일;
베를린주립미술관, 베를린

리로드, 갤러리 아이겐+아트, 라이프치히, 독일

2019 왓츠 업 / 런던, 로렌스 반 하겐, 런던

두 세대: 젊음, 갤러리 크론, 베를린

프리뷰, 학교재, 서울

수영복을 챙겨라,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GMA XXX AAR,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10년의 흔적, 조쉬 릴리, 런던

툼 안홀트/크리스 해머라인, 데릭 엘러 갤러리, 뉴욕

- 2018 베를린 콜링. 작업과 종이,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사치 갤러리, 런던
종이 작업,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2017 부역의 새 싱크대, 조쉬 릴리, 런던
그렌저-파롱겐,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모두 함께 지금, 1969 갤러리, 뉴욕
종이!, 68 프로젝트, 베를린
- 2016 모두 함께 지금, 1969 갤러리, 뉴욕
종이!, 68 프로젝트, 베를린
- 2015 당신은 내게 꽃을 주지 않잖아요,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섬사람들,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 2014 사람, 장소 또는 사물,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종이 작품과 조각품,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드로잉들과 에칭, 갤러리 코른펠트, 베를린
- 2013 이런 날들- 톰 안홀트와 데이비드 모세,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각각 하나씩, 갤러리 루시 클레너, 베를린
모든 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자화상, 폴레르스타 고르, 스톡홀름
제유, 프라이에스 뮤지엄, 베를린
- 2012 빌드스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코펜하겐
리지 파인 아트, 아티스트 쇼케이스, 런던
모든 물, 갤러리 미카엘 안데르센, 베를린
세상들, 갤러리 아데스, 베를린

주요 소장

사치 컬렉션, 런던
컬렉션 알레산드로 베네통, 트레비소, 이탈리아
컬렉션 마리오 테스티노, 런던
컬렉션 미티넨, 독일 및 핀란드
덴마크 서지센터, 코펜하겐
수잔과 마이클 홀트, 뉴욕
캐롤 서버와 올리버 프랭클, 뉴욕
올레 파럽, 프레더릭스보르그, 덴마크
만프레드 헤르만, 베를린
제라드 로페즈, 룩셈부르크